



봉사, 사랑 모두 TOP

3세대 통합 여름 자원봉사학교

'TOP GOAL 人'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원스님)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03년 3세대 통합 여름 자원봉사학교 'TOP GOAL 人'을 열었다. 불교복지 사상 처음으로 열린 3세대 통합 여름 자원봉사학교는 모두 40명의 노인과 장애인, 학생들이 참가해 자원봉사의 참맛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강원도 원주 소적새마을을 찾은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핵가족 시대를 살면서 느끼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왔다.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식사시간.

그렇게 시작됐다

물 맑고 산 깊은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소적새마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소적새마을을 찾는 날이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3세대 통합 여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단이 바로 그 손님들.

버스가 소적새마을에 들어서자 소적새마을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버스에서 내리던 유미(서울동대사대부여중, 21)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털썩 겁을 낸다. 곁에 있던 최영호(82, 서울보광동) 할아버지가 "괜찮아,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야"라며 유미의 등을 토닥거리며 준다. 유미와 최영호 할아버지는 같은 조는 아니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친선녀와 친할아버지 마냥 친해진 것이다.

"엄마, 엄마"라며 머리가 희끗한 장애인 한명이 김순이(56, 서울갈현동)씨 품에 안긴다. 김순이씨는 팔을 벌려 꼭 보듬어 준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교육이 있었다. "소적새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라는 소적새마을 최현아 선생(복지부) 말에 사뭇 긴장감이 흐른다.

"이곳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기신발 잘 챙기세요"라고 최 선생님이 교육 마지막에 덧붙인다. 순간 참가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문 밖에 있는 신발로 향한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박장대소가 터져 나온다.

첫인상 '급식봉사'

연꽃반 급식봉사를 맡은 상훈(구일초, 6년)이는 식판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 양손에 식판 하나씩을 든 상훈이의 모습은 보기에 도 위태롭다. 이내 문 앞으로 마중을 나온 의천(32,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개발팀장)씨가 식판을 받아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밥과 반찬을 먹는 일은 신성균(79, 서울갈현동) 할아버지 몫이다. "아이구 우리 손주 잘 먹네"라며 신성균 할아버지는 손자 같은 장애인의 등을 어루만져 준다. "체할라, 꼭꼭 씹어 먹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장애인 입가에 묻

은 음식물도 신성균 할아버지는 손으로 쓱쓱 닦아준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장애인들도 이제는 제법 넉넉잡 밥을 받아먹는다.

처음 급식봉사를 하는 상훈이는 오늘 배우는 것이 많다. 신성균 할아버지와 의천씨가 장애인들에게 친손자, 친아들처럼 정성스레 밥을 먹는 모습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것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작은 콘서트로 하나 되기

식사가 끝난 소적새마을 운동장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쉬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조그마한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콩팥콩팥 내박자 속에..." 한 장애인 이 부르는 노래다. 김순이씨도 흥겨운 듯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노인요양복지 일을 하고 싶다는 미희(수원원생대, 3년)씨도 박수를 치며 거든다.

이성덕(85, 부천 오정동)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있던 하모니카를 꺼내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한다. 노래에 맞춰 반주를 해 주던 이성덕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리랑'을 연주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붙잡고 아리랑을 부른다. 장애인, 어르신, 일반인, 학생 모두가 하나다.

떠나는 마음, 남는 마음 모두 아쉬워...

헤어질 시간이다.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남는 사람은 윤종태(74, 서울잠실합동) 할아버지. 손자 같은 장애인의 활거리를 밀어주던 윤종태 할아버지는 힘서 손 놓지 못한다.

"나도 6·25때 총상을 입어서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남 같지 않아요. 우리집에 있는 손주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끝이 흐려진다. 동호(시흥은행중, 1년)는 그런 윤종태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다. 동호도 돌봐주던 장애인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떠나는 이나 남는 이 모두 아쉬워만 하다.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이다. 그래도 3세대 통합 여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단은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갖고 떠난다.

이제 한가족 됐어요

동용하(80, 인천 부평동)

"지난 한·일 월드컵 때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이번 행사는 3세대가 모두 모여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번 찾고 싶습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정재욱(65, 서울 동선동)

"탑골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인연이 돼 이번 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소적새마을의 어려운 현실을 보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김상임(경대 사회복지학, 1년)

"이번 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조에서 봉사활동을 한 동생들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소적새마을이 비인가 시설이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보솔(성신여고, 1년)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택 계속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어요."

이상훈(구일초, 6년)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누나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아요. 집에 돌아갈 때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던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